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음 9월 14일) 제19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사활 건다

목표 6조5000억원대 달성 위해 국회 방문

도내 핵심 현안사업 예산 반영토록 요청

국회단계 4500억원 이상 추가 증액 위한 대응 나서

송하진 도지사는 1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국회를 방문해 농해수위, 과기위, 교문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들을 만나 2018년도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갖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2018년 국가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는 11월을 맞아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격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송 지사는 먼저 1일 국회 농해수위, 과기위, 교문위, 복지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방문 도정의 주요 핵심사업이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5개 정도의 주요핵심사업을 선정, 사업에 대한 전북에서의 추진 당위성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을 설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는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으로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과 국가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전북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진섭 정무위원장을 만나서는 전북권에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사업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충혼탑과 추모광장 건립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 신상진 과기위원장에게는 핵심사업으로 2023년 스마트 잼버리를 통한 VR/AR 기술의 세계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전북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정착과 사업화 촉진 진원을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사업과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지원을 부탁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공적연기금기관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 화장품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핵심사업으로 건의했다.

설훈 농해수위원장에게 국내 종자산업 규모 확대와 세계 종자시장이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과 2018년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 지원 요청과 더불어 국가사업임에도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고 있는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립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환노위의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에게는 새만금 상류지역의 잔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비 지원과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천문기상과학체험을 위한 기상인 체험교육관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반영 지원을, 김승기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에게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신속한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동서도로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인프라 적기 구축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4개 국도 신규 건설 사업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전북금융센터 건립 사업 예산 반영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심재권 외교위원장을 방문, 한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6조5000억원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단계에서 4500억원 이상의 추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이재만·안봉근, '국정원 상납' 인정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상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총선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 그리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5억을 받아, 2016년 4.13총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미 해당 여론조사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도 조사한 상태다.

또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체포해 국정원으로터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전날 검찰 구속상태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국정원에 돈을 상납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체포시한은 2일 오전까지다. /뉴시스

전주 세계슬로포럼, 3일까지 개최

'느림'의 가치 확산

슬로어워드 수상자 시상식서 마우로 이탈리아 아솔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수상

전주시가 느림으로 대표되는 슬로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 세계 슬로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는 지난해 인구 60만 이상 대도시 중 세계 최초로 도시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수도로 불린다.

전주시는 1일 전주향교 대성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폰테베드라 시장과 다니엘 디아즈 스페인 폰테베드라 경찰서장, 호주의 생태건축가인 나이젤 벨 호주 카툼바시 주민협의회장 등 3인의 슬로어워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관련 기자단담회를 개최하고, 행사 개최 의미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세계가 묻고 전주가 답하다'를 주제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자동차보다 사람 △콘크리트보다 녹색생태 △직선보다 곡선을 추구하는 전주시가 전 세계 슬로시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국제대회로, 슬로 운동의 해외 전문가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주민협의회, 슬로시티 全州(전주)학교 오손도손 교육 수료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전주 세계슬로포럼 & 슬로어워드를 통해 지난해 인구 60만 이상 대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도시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도시로서 '세계 슬로시티의 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당찬 첫걸음을 뗐다.

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슬로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해 국제 규모의 시상제도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전주시가 슬로시티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우수하게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는 '슬로어워드'를 주최한다는 것은 세계 슬로운동의 거점도시로 그 위상을 인정받은 셈이다.

한국슬로시티본부가 추천하고 국제슬로시티연맹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슬로어워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1회 슬로어워드는 △UN이 선정한 '보다나은 인류의 미래도시' 미구엘 로레스 스페인 폰테베드라 시장 △국제 슬로시티 지역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카툼바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한 호주의 생태건축가 나이젤 벨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수영장 시설을 금지하는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물 낭비를 개선하는 '물 절약 정책'을 소개한 마우로 미글리오니 이탈리아 아솔로 시장에게 돌아갔다.

국내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해 느림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느림과 비움의 미학'의 저자인 장석주 시인 △인기프로그램인 '삼시세끼'를 통해 여유 있는 삶과 슬로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 나영석 PD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직까지 슬로시티를 한옥마을에 한정해 생각하는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슬로시티의 주민으로서 '느림의 가치'를 생활에서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2면 - 한중관계 개선 선제적 준비
3면 -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 갖도록"